

부활 제 6 주일

제 1 독서 : 사도 15,1-2.22-29

제 2 독서 : 묵시 21,10-14.22-23

복 음 : 요한 14, 23-29

숲 정 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요한 14,27).

강 련

소 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영 우 신부 / 중앙 천주교회

하느님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확신과 희망이 있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 영광스러이 부활할 것이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과 확신인 것이다. 바로 이 희망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려 애쓰는 것이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인간적인 손해와 물질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윤리적인 규범들과 계명들을 지키려 애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도 않는 죄들을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떼어 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희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협조자이신 성령과 당신의 평화를 약속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는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신앙과 희망이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으로 끝맺게 되리라는 보장인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휴거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약속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핑과 닭”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김 씨와 이 씨간의 풀사나운 혈투기 포함 등으로 몇 달씩 나라가 시끌벅적하더니 야권에서도 또 김 씨와 이 씨, 정 씨가 모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제까지 대권 도전자들의 언행으로 미루어 오는 대통령 선거도 역대 선거에 못지 않게 치열하고 추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앞선다.

지난날의 선거에서 후보들이 약속한 바가 모두 지켜졌더라면 이 나라는 진즉 민주화가 끝나고 경제에도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이 없으려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볼 때 새로운 집권자가 들어선다 해서 얼마나 나라 사정이 좋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요즘 현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여당도 싫고 제일 야당도 못 믿겠으니 이번 대선에서는 차라리 그도저도 아닌 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기성정치를 썩어빠졌다고 비판하고 무역직자를 몇 년 안에 없애버리겠다는 신당의 후보 선출자에게 관심을 갖고 또 끝내 후보로 나섰을 때 그를 지지하고 앉고는 투표권자의 자유다.

그러나 대통령직의 위상과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볼 때 느닷없이 정치에 뛰어든 인물들 ‘핑 대신 닭’을 고르듯 선택하기에 앞서 이제까지의 역정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성급한 걱정을 해본다. **진**

숲 정 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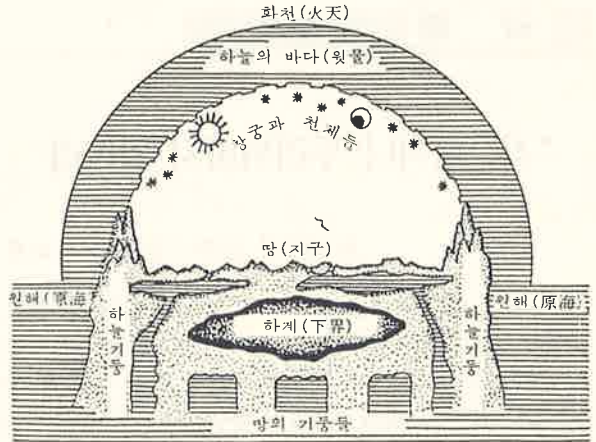


성서교실 ⑦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2,4)

창세기 1장의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 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 539년 풀려날 때까지 바빌로니아에서 귀양살이하는 동안 사제계급들이 기록한 것이다. 질서와 체계를 존중하는 사제계급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일정한 순서에 입각하여, 곧 무생물에서 식물, 동물을 거쳐 하느님의 모상이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창조 순서를 보면 하느님은 우선 빛을 창조하신다. 여기서 빛과 대조를 이루는 어두움은 창조에서 제외되고, 낮과 밤이 구별되어 날수가 헤아려지는 가운데 창조가 진행된다. 하느님은 그저 말씀으로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다. 낮과 밤을 다스리는 ‘창공에 빛나는 것들’은 해와 달을 가리키는데 해와 달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 민족들이 해신과 달신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습을 닮은”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시편 8장 5절에서처럼 하느님이 천상 조정의 관리들인 천사들과 상의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이름을 가나안의 신 ‘엘’을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느님의 위엄과 충만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두 해석 모두 경신례 안에서 하느님의 천상적 위엄을 최대한 드높이려 했던 사제들의 경건한 태도와 연결된다. “모습을 닮은”에서 ‘닮다’는 표현은 ‘모습’이라는 말에 내포된 동등함이라는 개념을 배제시키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신학자들은 “우리의 모습” 즉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란 동물이 갖추지 못한 인간의 지성, 의지,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지만 당시 사제계급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피조물의 관리자로 내세우기 전에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이 관계를 통하여 마땅한 자격과 권위가 인간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인 “쉬셨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이 끝없는 휴식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안식일은 ‘영원’이 주는 ‘하루’라는 선물이고 영원의 한 부분이다. 이날을 거룩히 지내는 것, 그것은 곧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이다.



성경 저자들이 상상한 세계상

이상의 모든 요소들을 앞서는 구절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6일 동안 내내 만족해 하심을 나타낸다. 하느님은 창조의 옛날날을 마감하면서 “좋았다”라는 표현에 ‘참’이라는 부사를 덧붙여 당신이 하신 모든 일에 감탄하기까지 하셨다.

창세기 첫장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주와 인류의 시작이 바로 하느님께 있고 인간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혼돈 상태에서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어 그 안에 온갖 것이 질서있게 살도록 창조하시고, 그 조화의 절정을 인간에게 놓으셨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하느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질서나 조화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 창조 목적에 얼마나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민구(프란치스코)

유해미(마리아)

효자동 한양 윤남아파트상가

☎ 224-1696

한가람 문구

함열읍 와리(세광사 건물)

전상환(요셉)

오애란(마리아)

☎ 862-3554

자칼 텐트 셋트 분할판매

각종 등산 장비 일절

정시택(아오스딩), 김미향(세실리아)

군산 시청 옆(군산시 영화동 20-3)

☎ (0654) 445-6090

445-6091

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99-1

팔보종합아채효소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전북지사 ☎ (0652) 74-1161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손석중(안셀모), 김제철(안젤라)

5분 교리 11

“우리의 만형이신 그리스도”

밀바다 인생을 헤매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 청년이 예수님을 ‘스도형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불렀을망정 (그리) 스도형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친밀하고 정겨운가.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사시는 동안 참으로 우리 모두의 든든한 만형으로서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끝내는 위태로운 동생들 생명을 구하고자 죽음의 바다로 뛰어들으셨다. 예수님은 가련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수많은 병자들을 깊은 연민으로 치유해주셨다. 나병환자, 중풍병자, 소경, 하혈병자, 마귀들린 사람 등 모든 기적은 사랑스런 동생들의 긴급한 구조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과 신기한 일에만 흥미만을 갖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느님의 현존과 자비에 대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다. 그분의 설교는 단순하고도 깊이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문맹자도 지식인도 그분의 지혜에 권위를 느꼈다. 당신과 인간성을 나누어 가진 형제와 자매의 선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시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잘하시느”(마르 7,37) 주님께서 이제 가장 완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사건을 이루신다. 인간을 대신한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모든 사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느님은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원하시므로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의 모양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온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의 힘과 구원의 은총이 사방으로 모든 이에게 퍼진다는 것을 말한다.

* 참고 자료 : 예수 내 인생의 의미(책) · 나자렛 예수(VHS 480분)

교 구 소 식

1. L.A. 한인교포 돕기 위한 2차 헌금 : 5월24일(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2.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 5월26일(화) 오전10시-중앙 성당, 오후2시-서신동 성당, 5월29일(금) 오전10시-대야 성당, 오후2시-오룡동 성당.
3. 교구 법원 : 5월25일(월) 오후4시 교구청.
4.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5월29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정삼권 신부.
5. 성체 신심 세미나 : 6월5일 오후 4시30분-7일 오후5시30분 나바위 성당 교육관, 강사-이병호 주교, 이범주 신부 외 강사, 회비-35,000원.

- **성소모임**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72-5266.
 살레시오수도회 : 5월21일 오후2시-5시30분 가톨릭센터 2층 평화신문사
 (062)55-03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디스포자 사용 중지!

주방 오물분쇄기(디스포자)를 사용치 맙시다. 이를 사용할 경우 하수도로 흘러간 오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수질 오염을 가중시킵니다.

은하 피아노 교습소

올대 피아노 전공
 이 은 하(루시아)
 거성 고속2차 맨션과
 천변주유소 사이
 ☎ 75-6342

사무용 가구
(주) 삼 신 전북특약점
 금고, 목·철재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책상
 중앙시장 뒤 노벨탕 옆
 ☎ 253-3361~2
 정 광 호(안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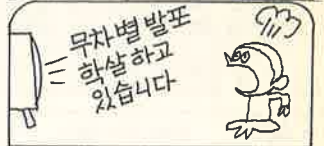
정 연 머리방

신부화장전문, 특수헤어스타일,
 컷트, 파마, 피부미용관리
 효자동 제일여객 앞 골목
 조 정 연(글라라)
 ☎ 223-4701

치질 전문 치료
서울 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요십이 (981) 김병오



평화동 경품번호 바자회

- 2등 : 30900, 31290
 - 3등 : 08274, 26453, 23436
 - 행운상 : 948, 444, 846, 295, 318, 010, 987
- 경품 인도 기간 : 5월25일까지
 문의 : 83-8245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일시 : 1992.5.31. 오후2시~5시
 장소 : 삼랑진 본원
 ☎ (0527)52-4241

조주온 치과 의원

해외 연수관계로 5월 말까지 휴진합니다.
 조 주 온(헬레나)
 이 종 민(요 션)
 중앙 성당 맞은편
 ☎ 87-829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김 동 주

1. L.A 교민을 위한 2차헌금: 뜻하지않은 재난을 당한 교포들을 위한 헌금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2. 레지오 마리에 옥외행사: 오늘12시, 치명자산, 군경요지쪽입산 3. 26일(화) 미사없음. 4. 제대회: 28일(목) 9시30분 5. 빈첸시오회: 28일(목) 10시30분 6. 예수승천 대 축일행사: 31일(다음주일), 옷놀이와 국수잔치(공식미사 후), 옷놀이팀 명단을 30일(토)까지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7. 첫영성체교리: 대상-국교4,5,6학년, 시간-26일부터 매주 화,수,목,금 오후4시30분, 첫영성체-6월21일 8. 중·고 견진교리: 시간-6월6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후6시. 견진성사-6월28일 공식미사 9. 감사: 외등설치, 대기수 형제님 10. 금주청소: 중노19,20만 차주청소-중노21,22만
- 지난주 봉헌금: 879,260원 □ 교무금: 1,09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한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삼 인

1. L.A 교민 돕기 2차 헌금: 오늘 미사 중에.
 2. 성모의 밤 행사: 28일, 미사-저녁7:30분
성모의 밤 행사-저녁8시
 3. 병자 봉성체: 29일(금) 사무실에 신청 바람.
 4. 유아세례: 30일 저녁7시
 5. 제대회: 26일 오전10:30
금주전례: 최옥남 독서-나경섭씨 부부
봉헌-채용석씨 부부
차주전례: 정승훈 독서-신일균씨 부부
봉헌-이태영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72,490원 □ 교무금: 1,106,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 오늘은 부활6주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1. 승천대축일 야외미사: 31일(다음주), 오전10:00, 어두리, 점심,미사도구. 2. L.A한인돕기2차헌금: 오늘 모든 미사중 3. 울뜨레아, 성가대 웰레회: 29일(금) 저녁미사 후 4. 초등부 체육대회: 오늘 성성여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5. 문규현 신부님을위한 기도회: 6월1일저녁8시 중앙성당 6. 성서읽기: 신명기1장-15장 7. 청소년사: 구세주의 모친Pr 8.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정광섭 ②송정자 봉헌-양재철, 김대권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유순천 ②이석남 봉헌-한동욱, 황옥섭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2,620원 □ 교무금: 10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김 명 웅

- ※ 부활제6주일! (L.A한인 교포돕기 위한 2차헌금있음)5일은 성모성월!
1. 알릴: ①어린이체육대회-5월24일(오늘)오전9시~오후5시. 성심학교교정에서 남전주지구 어린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부모님들과 사목회 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주시기 바랍니다. ②성모의 밤행사-5월30일(토) 저녁미사 후 ③견진성사-6월14일(일)견진성사 받으실분은 신청서와 영세증명을 5월30일(토)까지 사무실에 제출바람. ④청년성가대-6월 첫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청년성가대를 하겠사오니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⑤중고학생체육대회-5월31일(일)오전9시 교목대학교교정 예정.
- 지난주 봉헌금: 748,600원 □ 교무금: 35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바자회 준비에 적극 참여합니다. 매일미사 30분전(매일오전 10시): 목주기도=많이 참석바람.
 2. 꾸르실로 이수: 축하합니다-박희춘(테레사)수녀님!
 3. 다음주일: L.A 한인 교포 돕기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4. 청소년사: 2구역 3반,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677,800원 □ 교무금: 83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부활 제6주일
1. L.A한인교포돕기위한 2차헌금 있음.
 2. 금주: ①부활영세자 컷고백(메미사 전후)
②남전주지구 초등부 체육대회(전9시~후5시.성심학교 운동장)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2시)
④유치원 놀이터이전(공식미사 후)
-사목회,성화회,돈보스꼬회,청년회 협조바람.
⑤차량축성식(공식미사 후)
 3. 성모의 밤행사: 31일(일) 저녁7시
 4. 교무금 월납제와 주일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바람.
- 지난주 봉헌금: 1,630,790원 □ 교무금: 1,090,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안 규

- ※ 예수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31일 전10시30분 9시미사 없음
※ 오늘 L.A 한인 교포를 위한 2차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1. 축! 세례: 30일 후5시 대부모와 함께 30분전에 도착바람.
 2. 예비자 집중교리: 25일~29일 후7시30분, 통신교리자 함께
 3. 예비자 면접: 27일 전9시30분~12시30분 후7시 학생-24일
 4. 탈상미사: 27일 후4시 권요셉(권하철 형제 부친)
 5. 첫 영성체 교리시작: 6월1일~20일까지 매일 후5시
 6. 자선의날: 27일 어머니미사, 아버지미사 중에 정성껏 봉헌
 7. 교무금 봉헌주일: 24일 신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8. 회의: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성가대-어머니미사 후
 9. 교적 가져가고, 가져오기: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895,410원 □ 교무금: 918,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각

1. 청년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의: 27일(수) 오전-동신APT.
 3. 성모의 밤: 30일(토) 오후8시.
- 금주전례: 정 경 독서·봉헌-안귀래,조규명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윤금순,김호성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희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주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1. 꾸리야: 27일(수) 오전10시
 2. 성모의 밤 행사: 28일(목) 오후7시30분
 3. 중고성모밤: 30일(토)
 4. 유아세례: 31일(일) 오후4시 5. 울뜨레아: 오늘 저녁미사 후
"축"여성 제3차 꾸르실로수료자 축하합니다.
임종숙(마르타), 박경희(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1,361,400원 □ 교무금: 1,671,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L.A한인교포를 위한 2차헌금있습니다.
 3. 반석회: 공식미사 후 4. 성모의 밤행사: 28(목)저녁8시 5. 유아세례: 30(토)오후2시 6. 성전신축위원회정: 6월13(토)~14(일)천호성지 7. 반회장 및 제단제량 피정: 7월4(토)~5(일)나바위
- 차주모임: 나눔의 헌금,요세희, 예수승천야외미사
신축헌금 봉헌액: 1,036,180원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김용만 ②이병희
미사봉헌안내-이준영부부, 소철영부부
차주전례: 해설-김낙관 독서①이태영 ②조신욱
미사봉헌안내: 심학섭부부, 박천운부부
- 지난주 봉헌금: 1,168,190원 □ 교무금: 1,564,000원